

人力難 타개 — 산업체 기술대학



우수인력의 양성이 산업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취지에서 출발한 현대 엔지니어링의 사내기술대학원은 산·학협력의 차원에서 실무교육에 중점을 두고있다

우리 경제가 인력난, 자금난 기술개발 부진 등에 허덕이고 있다. 이는 생산성 저하와 함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1백억불을 상회하는 무역적자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의 업계에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내기술대학」을 설립해 전문인력 양성과 이를 통한 품질향상, 업계의 경쟁력 제고,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다.

현재 국내 산업계에는 韓進, 大宇그룹등을 비롯해 28개의 사내기술대학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중 과학기술처의 인정서를 받은 사내대학은 삼성전자, 한진그룹, 대우그룹(전문대/학사과정), 현대전자, 삼성중공업, 현대엔지니어링 등의 7개이다.

三星電子

人才第一의 경영이념 아래 기술개발인력의 자질향상과 사원들의 기술습득에 교육의 중점을 두고 있는 三星電子의 사내기술대학원은 '86년 개설당시 단기과정에서 출발해 지난해부터는 2년6학기제로 연장해 내실을 다져오고 있다.

정보처리학과등 3개 교과를 운영중인 이 대학원은 사내 박사급 연구원과 외부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의 교수진은 물론 커리큘럼과 실습기자재 면에서 정규대학원에 비해 결코 손색이 없다.

회사측이 사내 대학원 졸업자에게 승급시 일정율의 가산점 외에 어떠한 특전도 없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수는 정식입학생 42명을 포함해 1백25명에 이르고 있다.

주1회 4시간의 강의로 운영되는 기술대학원은 정보·통신부문 중앙연구소가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첫졸업생을 배출한다.

韓進 그룹

韓進그룹은 대한항공의 사내대학을 모태로, 지난 '90년 항공기계, 조선공학, 경영학과등 6개 학과를 확장 개설하면서, 그룹차원의 「한진산업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한진산업대는 이미 2期の 졸업생을 배출해 그룹내 각 계열사의 산업현장에서 일익을 담당케 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 부산등 계열사별 사내대학에서 총 5백여명이 재학중



대우그룹은 전문대과정과 학사과정 2원체계의 독특한 방식으로 사내기술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인데 사내기술대학중 최대규모이다.

정규대학과 똑같은 8학기 1백44학점을 2년 동안에 이수하게 되는데, 졸업후에는 정규 대졸사원 대우(2호봉 승급)를 받게 되며, 각종 해외연수 및 파견 등의 특전이 주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한진그룹은 내년 코리아타코마 조선소 사내대학 개설을 비롯해 산업대학 운영을 더욱 확대하여, 갈수록 어려워가는 기능인력 확보는 물론 사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넓혀줄 계획이다.

한진산업대학은 사내기술대학중 최대규모이다



大宇 그룹

그룹 내 9개 계열사를 중심으로 전문대과정과 학사과정의 2개 사내 기술대학을 운영하는 대우그룹은 거제전문대와 아주대 산업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독특한 二元的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능인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우수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출범한 전문대과정은, '88년 이후 3회에 걸쳐 1백2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현재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나뉘어 61명의 재학생들을 두고 있다. 교육기간은 9개월이며 이 기간동안에는 근무를 하지 않고 전일 수업제도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졸업자에게는 전문대졸 사원보다 1호봉 앞선 호봉을 주고, 기능직에서 관리직으로 전환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특히 성적우수자에게는 곧바로 학사과정 진학의 기회가 주어지는등 회사측은 재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높여주기 위해 많은 특전을 주고 있다.

학사과정 으로 운영되는 아주대부설 산업교육원은 1년 동안 33개 과목의 1백5학점을 이수하게

되는데, 전문대과정과 같이 전일수업제로 週당 46시간의 강의를 받는다.

학사과정은 기계공학과와 전기공학과를 개설하고 있으며, 2개 과목이 F평점을 받게되면 제적처리 된다.

또한 재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며, 각종 리포트와 연구과제 제출 등 엄격한 학사운명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산업현장과 이론 실습을 연장시켜 회사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실험실습과 실무를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학사과정의 산업교육원은 2년에 걸쳐 1백2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현재 그룹 계열사 사원 71명이 재학중이다.

現代電子

현대전자의 「기술전문대학」은 지난해 5월 1백명의 학생을 선발해 운영해오고 있다.

전자, 전산, 산업공학 등의 3개 과목을 개설하고있으며, 입사 1년이 지난 고졸사원들에게 입학 자격이 주어지는데, 2년6학기제로 80학점을 이수하게 되며, 일과후 하오 7시부터 3~4시간동안 강의가 진행된다.

회사측은 사내기술대학 과정에서 중도탈락자가 거의 없음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면서, 내년 4월 첫졸업생이 배출되면 이들에게 급여나 승진면에서 전문대졸 사원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三星重工業

삼성중공업은 거제조선소에 1년과정의 「조선해양 기술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9월 강의를 시작해 이제 4개월째 강의를 하고 있지만, 신설된 사내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과기처의 인정을 받았다.

하루 3시간의 수업으로 1년동안 40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힘겨운 생활이지만 학생들의



삼성중공업의 조선해양기술대학 입학식 모습

성실한 수업자세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회사측은 더많은 전문인력 양성과 사원들의 재교육을 통한 인재육성을 위해 앞으로 4년제 학사과정을 확대 신설해갈 계획이다.

평균연령 27세, 그야말로 주경야독으로晚學의 정열을 태우고 있는 조선해양 기술대학생들을 위해, 삼성중공업은 졸업생들에게 정규 전문대 졸업 학력을 인정해준은 물론 진급시의 가산점 부여와 호봉승급 등의 특전을 줄 계획이다.

現代엔지니어링

우수인력 양성이 산업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취지에서 출발한 현대엔지니어링의 사내기술대학원은 산·학협력의 차원에서 실무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1월 계동 본사에 전기공학, 구조공학등 4개 학과를 개설하여 2년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입학자격은 1년 이상의 근무경력 가진 학사학위 소유자이며, 졸업생들에게는 사내에서 석사학위를 인정해 주고 해외연수의 우선권등 특전을 줄 계획이다.

이 대학원의 특징은 강사진이 서울대, 과학기술대 등의 국내 우수대학 교수들로 구성되어 전원 외부강사를 두고 있는 점이다.

현재 77명이 재학중이며, 24학점 이수후 논문이 통과되어야 졸업이 가능하다.*